

東山에서의 40年을 回想(회상)하며



김건수 전교장선생님

남해 보리암, 낙산사 흥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이라는 강화도의 보문사가 있는 섬 석모도. 지금은 교통이 좋아지고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1960년대는 인천에 한 번 오는 것이 매우 힘들던 시절, 그 곳의 해명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유학을 와 동산중, 동산고를 졸업하고 1982년 2월 대학 졸업식장에서 만난 교수님의 소개로 문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처음 시작한 교사의 길.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치른 경기도 교사임용순위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발령날 때까지 잠시 머물다 가려고 인연을 맺은 문경여고. 그 곳에서 3학년 학생들을 맡게 되었고 5월 경 발령을 낸다고 교사자격증을 제출하라는 교육청의 독촉. 그러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뿌리치고 떠날 수 없어 친구에게 부탁해 순위고사 포기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초임 교사로서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 해를 보낸 뒤, 1983년 2월 봄방학을 맞아 학창시절 가르쳐주신 은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들렀던 모교 동산고.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쳐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1983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모교에서의 34년 교직생활. 은사님들과 함께하는 모교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지금 돌아보니 나에게는 큰 행운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교사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3년 단축되면서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교사들이 갑자기 학교를 떠나시면서 1999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교감이 되고, 2005년부터 12년간 교장을 맡아 최기형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명문 동산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05년 서울대 7명 합격에 이어 제60회 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LA다저스의 류현진, SK와이브스의 최승준 선수 등의 활약으로 우승하였고, 지하 식당에서 냄새와 습기에 시달리며 불편을 겪던 학생들을 위해 나근형 교육감님에게 특별히 부탁해 전국에서 전경이가장 좋은 학생식당 '맛동산'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야구부와 레슬링부 선수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최신식 숙소와 연습장인 '드림관'을 만들어 야구부, 레슬링부가 전국제패의 기쁨을 마련하였습니다.

1961년 개관하여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의 귀국 연주회, 송창식, 양희은 등 유명 가수들이 공연하는 등 한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당이 1977년 화재 등으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시설이 되어 입학식, 졸업식 때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미안했었는데, 2013년 다목적 강당인 '최승우기념관'으로 새롭게 우뚝 태어나 학생들이 실내에서 체육 수업도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9년 첫 번째 도전에 실패했던 'KBS 도전골든벨'. 2014년 '최승우기념관' 개관 기념으로 다시 도전하여 문성호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며 야구의 명문만이 아닌 실력이 뛰어난 명문 동산을 전국에 알렸고 2015년 대한야구협회장기 전국고교대회 우승, 2016년 제50회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하며 동산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시교육청 '효 체험 중심학교'로 지정되며 시작한 부모님을 위한 세족식,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등 효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내외

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학교 뒤 도로 확장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지며 소음이 심해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해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흘린 땀 냄새와의 전쟁을 치러 왔는데 2016년 멋진 방음벽이 만들어져 자동차 소음에서 해방되고 창문을 열고 쾌적하게 수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하던 1938년에 개교하여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는 동산은 그동안 인천 최초의 국회부의장(전수회 김은하)을 비롯해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해왔으며 이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원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학생 수도 줄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훌륭한 교직원들과 이덕인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동문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동산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산중·고등학교 6년의 학창시절, 동산고에서의 34년 교직생활, 동산의 교정에서 보낸 40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퇴임 후에도 동산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2017년 새롭게 취임하신 최기형 교장선생님, 이철형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과 학생여러분들 그리고 총동창회가 합심하여 동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